



새해에는 으라차차

2024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달력만 바뀌었을 뿐인데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고 있나요?

늘 그렇듯 처음 결심과 다르게
작심삼일로 끝나더라도
작년보다 더 행복한 나를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해 보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일 년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새해에 누리는 특권이니까요.

CONTENTS

Vol.84 2024년 1월 호

발행일

2024년 1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8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채선영·김아경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04 특집 기획

교육감과 학생이

함께 말하는 경남교육

10 요즘아이, 별별 꿈

마산중학교 씨름부

서금광·강세운

14 교육공동체를 만나는 시간

김해모산중학교 응급구조

자율동아리 〈하트비트〉

18 학교 변신은 무죄

경남 1호의 민간위탁 공립대안학교

김해금곡고등학교

22 열정을 만나는 시간

〈희망이룸〉오케스트라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26 방구석 도서관

28 경남교육캘린더

30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밀양에서 보내는

신나는 겨울방학

34 즐겁지 아니한家

2023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동주네 가족

38 토박이말 나들이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40 진로진학 나침판

42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소식

48 도정소식

50 독자기고

51 독자퀴즈



교육감과 함께 학생들이 함께 경남교육을 말하다

- **교육감** 안녕하세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입니다. 학생들도 소개를 해볼까요?
- **김담이** 저는 행복을 우선 순위로 살고 있는 충무고등학교 3학년 김담이입니다.
- **황다현** 사천 용남중학교 3학년 황다현입니다.
- **장자영** 저는 실용음악중심 특성화 학교인 거제예술장목중학교 1학년 장자영입니다.
- **김은우** 반갑습니다. 경남간호고등학교 3학년 김은우입니다.
- **정세훈**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신반정보고등학교 3학년 정세훈입니다.

2023년을 함께 돌아보다

#1

- **교육감** 모두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 **김담이** 저에게 2023년은 학생회장이 되어 바쁘게 보낸 해예요. 저는 학생회장이 되면 학생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학교생활규정 개편부터 스승의날 '웃행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어요. 특히 '미니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기까지 설득을 했던 과정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예산도 직접 조정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실제 올림픽처럼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게 뜻깊었어요. 그 결과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교육감님은 어떠세요?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 **교육감** 저도 담이 학생처럼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바라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를 꼽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일이 많았지만 특히

교육감은 언제나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학생들은 교육감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 다섯 명의 학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새 학년 새출발을 앞두고 각자 어떤 기대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눈 시간.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개원을 얘기하고 싶네요. 교육감으로서 제가 줄곧 강조해왔던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주도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2018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5년 만에 문을 열었네요. 우리 학생들이 미래교육원에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문해 본 학생이 있나요?

☞ 정세훈 의령군 학생회장단 활동 중 하나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회장단 일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학생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 김담이 교육감님,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교육감님과 저는 리더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요?

☞ 교육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입니다. 구성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죠. 리더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담이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회장이에요.

경남교육의 고민을 같이 나누다

#2

☞ 교육감 새해와 함께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있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될 텐데요. 다들 어떤가요?

☞ 장자영 저는 중학교 2학년 진급을 앞두고 고민되는 점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스스로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 벌써부터 고등 수학을 풀거나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면서 사실 걱정이 돼요. 저도 학원에 다니며 수능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 중2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 교육감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 학습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논의해서 만든 겁니다. 각 학년마다 가장 적당한 학습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는 건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학습내용입니다. 제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한 학년에 700명이 넘었는데, 전교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늘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에 진학해서 본 첫 시험에서 중간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다른 친구들이 방학 동안 학원에 다니며 미리 시험 준비를 할 때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크게 낙심해 한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과도한 선행 학습과 경쟁 속에서 뒤쳐진 셈이지요. 저는 학생들과 양육자에게 지나친 불안함을 조장하는 선행 학습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 학생이 다니는 장목예술중학교는 예술 특성과 학교잖아요? 그렇다면 예술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권하자면 이번 방학 동안 딱 10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눈에 띄게 자란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 황다현 저는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내년부터 운영되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두렵고, 고교학점제 특성상 1학년이 되자마자 진로에 맞게 수업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조언 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 교육감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고교학점제가 지금껏 대한민국 교육의 그 어떤 변화보다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는 일이 이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해진 거죠. 조언을 하자면 각 고등학교에는 교육과정이수지도팀이 구성되

어 있어 학생의 진로 또는 진학에 맞는 과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별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박람회, 선택과목 상담 등을 통해 과목 선택이 가능해요. 만약 진학한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이나 경남 온라인 학교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혹시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진로를 바꾸게 된 과정만 정확하게 기재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김은우 저는 새해에 스무 살이 되는데요. 기대나 설렘보다는 '내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제 꿈을 찾는 일에 바빴거든요. 그래도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니 무작정 사회에 내던져지는 기분이에요. 교육감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교육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뜻한 바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스님이 되겠다고 절을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건방진 생각인데요. 학교에서 미분, 적분을 푸는 삶보다 절에서 참선하며 한순간에 진리를 깨닫는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죠.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내려와 복학을 했고 남들보다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녔

습니다.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헛된 1년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떠나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절에서 깨달았던 지혜가 지금까지도 제 삶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은우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도 꿈을 찾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동안 은우 학생에게 쌓인 자양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는 말이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저는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싫어합니다. 나중에 영화를 누리기 위해 지금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따로 또 같이 꿈꾼다

#3

☎ **교육감** 저에게 또 어떤 궁금한 점이 있나요?

☎ **정세훈** 교육감님은 제 나이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교육감이라는 꿈을 갖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 **교육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나름 모범생이었지만 뚜렷한 인생의 목표는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에 좌절을 느껴버린 거죠. 그 때문에 방향을 했고 복학

후 1년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간 대학에서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죠. 그때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시험에 붙었고 약 20년간 교사 생활을 했어요. 교사를 한 지 10년이 지나자 새로운 일을 하고 싶더군요. 그러다 16년 차가 됐을 때 학교 도서관을 맡게 되었어요. 당시 도서관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문을 열었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죠.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아이들과 책을 연결해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시청에서 예산을 받아 도서관을 예쁘게 꾸몄죠. 운영 시간도 대폭 늘렸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의 새로운 꿈이 생겼죠. 우리학교 뿐 아니라 경남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이 교육위원입니다. 2002년 제 나이 43살에 교육위원에 당선되었어요. 이후 2010년까지 8년 동안 교육위원을 경험해보니 교육감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해볼 수 있겠다 싶었죠. 저의 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을 혁신적으로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2010년에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지고 2014년 재차 도전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어요. 이후 2018년 재선, 2022년에 세 번째 당선되었고 지금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 **학교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는 말이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 **김담이** 제 꿈은 공연기획자이자 예술경영인이예요. 그래서 대학교 예술경영학과에 지원했어요. 늘 과열 경쟁 구도가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보다 모두가 공생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꼭 세계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 **황다현** 저는 유치원 때부터 꿈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도록 노력하며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민생을 살리고 싶습니다.

☎ **장자영** 저는 경영 방향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호텔 CEO가 되고 싶어요. 특히 노인이라는 이유로 호텔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한 시니어 호텔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정세훈** 저는 체육교사가 꿈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재능도 있거든요.

☎ **김은우** 지금처럼 인생을 후회 없이 재미있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 **교육감** 다섯 명의 친구들 모두 멋진 꿈을 꾸고 있네요. 교육감인 저의 꿈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경남교육을 바꾸고자 했던 노력과 더불어 경남의 미래교육 기반을 탄탄히 닦고 물러나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저의 마지막 힘을 쏟는 것이지요. 저도 오늘 모인 학생들도 각자가 소망하는 일을 이뤄나가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준 학생들 모두 고맙습니다.



대화를 마치며,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 **황다현**

그간 궁금하였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직접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김은우**

처음엔 '지루하겠다. 형식적인 행사겠지?' 생각했는데 참석해보니 교육감님께서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였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 **김담이**

고진감래 사자성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교육감님 말씀이 너무 공감돼서 기억이 남습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모두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 **장자영**

교육감님이라고 하면 무섭고 근엄한 분이실 것 같아 긴장했는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 **정세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리더인가 다시 생각해보며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씨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두 선수가 있다.
첫 대회에서 천하장사가 된 이만기 선수와
19살에 최연소 천하장사가 된 강호동 선수다.
타고난 씨름꾼 두 선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이들이 마산중학교와 마산용마고등학교
씨름부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씨름부 명문답게 마산중학교는 여전히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2023년에는 제52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해 단체전 3관왕*을 차지했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도 모래판 위에서 짜릿한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서금광 선수와 강세운 선수를 만나 물어보았다.

* 2023년 단체전 우승 대회

제19회 학산김성률장사배전국장사씨름대회
제23회 중평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
제52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서금광, 강세운 두 선수는 어떤 계기로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 **서금광** 초등학교는 마산이 아닌 거제 계룡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하루는 교실 TV로 어떤 형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게 멋져보였어요. 알고 보니 씨름부 형이었어요. 저도 멋진 상을 받고 싶어서 씨름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막상 해보니 제 적성에 잘 맞았어요. 승부욕이 강해서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트리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 **강세운** 저도 금광 형과 같이 거제 계룡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감독님이 씨름부에 들어오면 수요일마다 치킨을 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혹해서 씨름부에 들어갔죠.

세운 선수는 치킨 하나로 씨름을 시작하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두 선수는 거제에서 마산중학교로 진학한 이유가 있나요?

☎ **서금광** 마산중학교가 씨름부로 유명하잖아요. 계속 씨름을 하려면 마산중학교에 무조건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말고도 전국에서 온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마산중학교에 왔던 날 씨름부 규모가 커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마산중학교 씨름부의 하루가 궁금해요. 다른 지역보다 훈련량이 많았던데 정말 그런가요?

☎ **서금광** 등교 전 매일 새벽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체력 훈련을 하고 학교에 가서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수업을 들어요.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역시 체육 수업이에요. 제가 씨름 말고 좋아하는 게 축구라서 체육 시간과 쉬는 시간에 축구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면 씨름부로 돌아가서 늘 2시간씩 훈련을 해요. 방학이 되면 추가되는 훈련이 있는데 바로 매일 아침 학봉산을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지만 다리 힘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1 2023 천하장사씨름대축제를 비롯해 전국 대회 단체전 3관왕을 기록했다.
02 단체전 3관왕의 비결은 단합력이라는 마산중 씨름부

최근 몇 년 동안 씨름이 다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씨름의 희열〉, 〈씨름의 제왕〉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씨름의 매력을 느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생각하는 씨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 **서금광** 씨름 하면 역시 상대방을 넘어트릴 때의 쾌감 아닐까요? 또 선수들이 서로의 살을 맞대고 하는 스포츠가 많이 없는데 씨름이 그중 하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긴장감과 재미를 높여주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 **강세윤** 씨름은 기술이 약 400가지 되거든요. 다양한 기술을 펼치는 모습이 멋있고, 또 경기에서 이겼을 때 선수들이 하는 세리머니도 재미있어요. 순간 너무 기쁘니까 어떤 선수는 소리를 지르고, 어떤 선수는 춤을 추기도 하거든요.

두 선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 **서금광** 선수로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신력이예요. 경기에 들어가기 전 “꼭 이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야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장기전이에요. 지난 전국소년체전 결승전 때도 장기전으로 상대편 선수를 넘어트렸어요.

☛ **강세윤** 저는 팔다리가 길고 힘이 좋아요. 자신 있는 기술은 발다리 기술인데요. 빠르게 선수를 넘어트릴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작년 첫 전국대회 단체전 경기에서 저희 팀이 1-3으로 지고 있을 때 제가 발다리 기술에 성공해서 역전승을 했어요. 그때 씨름부 동료들이 잘했다고 행가래 쳐주던 게 기억에 남아요.

2023년, 마산중 씨름부가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했어요.

두 선수가 생각하는 우승의 동력은 무엇인가요?

☛ **서금광** 선수들끼리 너무 친하고 끈끈해서 단합력이 좋다는 것? 경기 끝나면 수고했다, 잘했다고 서로 안아주고



03 서금광 선수와 강세윤 선수가 시범을 보이고 있다.
04 서금광 선수의 장기는 장기전이다.
05 대회가 끝난 후 서원곡 씨름장에서 찍은 마산중 씨름부 단체 사진



몸에 묻은 모래 털어주고 응원도 열심히 해주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강세윤** 저도 금광 형과 같은 생각이예요. 저에게 씨름부는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그 어떤 말보다 씨름부 형, 친구, 동생들이 잘했다고 말해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감독님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평소엔 엄격하시지만 잘 못할 때도 많이 혼내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씨름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 **서금광** 저는 올해 마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용마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요. 씨름으로 가장 유명한 용마고등학교에 가는 것인 만큼 선배들을 따라 열심히 훈련을 해서 실력을 키우고 싶고요. 제 이름과 비슷한 ‘금강장사’를 스무 번 하는 게 꿈이에요.

☛ **강세윤** 마산중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중 제 롤모델은 강호동 선배님이예요. 경기에 임할 때

긴장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기술도 화려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분처럼 저도 대회마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마산중학교 씨름부 심우현 감독님 인터뷰

☛ 저는 마산중학교 씨름부를 17년째 맡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산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씨름부 선수들에게 애정이 큼니다. 저희 학교는 씨름으로 전통이 오래된 학교이고,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씨름부가 운영되고 있고 우수한 선수들이 매년 모여주고 있죠. 그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선배들에게,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직접 보고 몸으로 겪는 것만큼 좋은 훈련은 없거든요. 그리고 선수들끼리 워낙 사이가 좋아서 단합력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지요. 또 마산중 씨름부 선수들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중심’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중심을 단련하기 위해 체력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고, 항상 나는 너희 편이라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 전 엘리베이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여성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마침 그 여성이 대학병원 심장내과 간호사였기에 신속한 처치가 가능했다고 한다. 만약 우리에게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어떨까?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서 응급 구조 방법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 김해모산중학교 응급구조 동아리 <하트비트>의 김수희 보건교사와 2학년 이상민, 이나경, 최효정 학생을 만나보았다.

김해모산중 응급구조 동아리 <하트비트>



경남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하트비트> 수상작



01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는 상민과 나경
02 영아 심폐소생술은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야 한다.

<하트비트>는 2023년 3월 학교 자율동아리로 시작되었다고요?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김수희 저는 올해 14년 차 보건교사예요. 2021년 김해모산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전에는 보건 특성화고에서 보건간호와 교사로 일하며 9년간 응급구조 동아리를 운영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제자들이 응급구조경연대회 수상을 계기로 응급구조사가 되기도 하고,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활동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한 심폐소생술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응급처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해모산중학교에서도 이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9명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여러 동아리 중 응급구조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효정 제 장래희망이 응급의학전문가가 되는 건데요. 응급실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심폐소생술을 배워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이나경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보건 선생님의 추천으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상민 1학년 때 누리 교실의 주제가 '건강증진교실' 이어서 보건실이 익숙해진 데다 제가 점심시간에 종종 다친 친구들을 돕는 치료 봉사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건실에서 자주 마주친 효정, 나경이와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됐어요.

최효정 보건 선생님께서 항상 친절하고 잘해주셔서 보건실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웃음)

응급구조 동아리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최효정 2023년, 저희가 여러 응급처치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요. 대회마다 심사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대회는 상황극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대회는 영아 심폐소생술을 같이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서 대회 일정과 내용에 맞춰서 점심시간마다 모여 연습을 했어요.



03

길을 걷다 심정지로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효정**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우선 한 명을 지정해서 신고해달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겐 현장 통제와 함께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아와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쓰러진 사람의 의식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압박 자세와 손 모양, 압박 깊이와 속도가 중요해요.

응급처치경연대회뿐 아니라 경남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어요. 어떤 영상인가요?

☞ **이나경** 주취자가 119구조대에 허위 신고를 하고 폭력을 저질러서 구조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대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왜 허위 신고를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재연 영상과 뉴스를 만들었어요.

출전한 대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무엇인가요?

☞ **최효정** 아무래도 저희가 대상을 받은 경남응급처치 경연대회(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주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긴장을 많이 해서 연습보다 실전에서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 **이상민** 최우수상을 받은 전국 대회도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다 친한 친구다 보니 단합력이 좋아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수희** 동아리 학생들과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웠고, 대회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위축되지 않게 응원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는데 전국 대회에서 친구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경남 대표로 출전한 김해 모산중학교”라고 해야 하는데 “김해 모산 대표... 경남입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많이 웃었어요.



03 점심시간마다 보건실에 모여 연습을 한다.
04 전국 학생 심폐소생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05 경남 학생 심폐소생술대회에서 대상·최우수상을 받은 학생들
06 〈하트비트〉 동아리 담당 김수희 보건교사



04



05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최효정** 〈하트비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는 저의 꿈이 더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경험을 하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 **이나경**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을 익히게 돼서 좋아요. 새해에는 동아리 신입생이 들어올 텐데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국 대회에서도 1등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보건실을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선생님 덕분일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 **김수희**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친구들과 협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동아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학교와 교실에서 몸과 마음이 다치는 일이 있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보건실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모산중 학생들에게 보건실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06



심폐소생술 시행 순서

- 확인**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한다
- 신고**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하고, 호흡을 확인한다.
- 압박** 분당 100~120회로 강하고 빠르게 30번 압박한다
- 호흡** 기도를 열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2회의 인공호흡을 한다
- 반복**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반복한다
-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기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심폐 소생술은 심정지 이후 4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명의 인격체를 기르기 위한 노력 김해금곡고등학교

경남에는 13곳의 대안학교가 있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인성, 소질 위주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2023년 개교 5주년을 맞은 김해금곡고등학교는 ‘김해대안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만든 경남 1호 민간위탁 공립대안학교다. 공교육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으로 탄생했다. 공립학교에 민간이 대안학교의 전문성을 적용해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민간위탁 공립대안학교의 취지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을까. 김해 한림면에 위치한 김해금곡고등학교를 찾아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너 하나를 위해 온 우주가 있는 듯’

김해금곡고등학교 입학식 때마다 걸리는 현수막의 문구다. 이철수 작가의 시화에서 차용한 이 문구는 김해금곡고등학교의 철학을 반영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길러내기 위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다. 학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승주 부장 선생님은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 **이승주 부장 선생님** “대안학교에 대한 쉬운 오해 중 하나는 학교 규율이 느슨하고 자유로울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규율이 엄격해요. 흡연, 음주, 학교폭력 문제에 더 엄정해요. 수업의

자유성은 크지만, 학생 스스로 할 과제의 양은 훨씬 많은 편이죠.”

고통이 삶을 이루는 조건이듯, 교육 현장에도 고통은 필수다.

김해금곡고등학교의 필수 교과 과목은 국어와 사회, 두 가지다. 각종 학교법에 따르면 두 과목만 일반 학교의 50%를 이수하고 나머지 교육과정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10명의 선생님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교육과정의 핵심은 ‘함께, 실존, 서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 1학년 생활의 핵심인 ‘함께’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감나게 가르치기 위해 ‘불편함’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발표 수업뿐만 아니라 고된 현장체험학습이 많은 이이다. 낮선 장소에서 먹고 자며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배움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해양산악훈련도 마찬가지다. 학년별로 떠나는 로드 스쿨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교육이며 여행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팀을 짜고 자율적으로 기획해 대한민국 곳곳으로 떠나는 공부다.

☞ **구민서 2학년** “테마별로 나눠 여행 학교를 떠났어요. 저는 책, 문학, 글쓰기를 좋아해서 부산의 독립서점을 다니면서 인터뷰했어요. 섭외부터 준비까지 모두 도맡았죠. 준비하며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새해 지역서점 활성화사업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는 속상한 사실도 알게 됐죠. 초·중학교 때 선생님 주도하에 어른들 인터뷰를 한 적은 있었지만, 나의 확고한 의지로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게 가장 뿌듯한 점이에요.”

☞ **이승주 부장 선생님** “학생들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일부러 제공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힘은 낮선 상황과 고민 속에서 생겨나거든요. 공동 생활을 익히기 위해 불

편함을 먼저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고통을 겪고,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 실패를 독려합니다. 불편함, 고통, 실패는 독립적인 인격체의 필수 조건입니다.”

김해금곡고등학교만의 특별한 평가, 연극통합수행평가

연극은 음악, 역사, 미술, 문학, 체육 등 모든 요소가 접목된 예술이다. 김해금곡고등학교에서는 통합교과적 관점으로 연극통합수행평가를 실시한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의 구민정 교수와 대학원생들도 외부 강사로 함께하고 있다. 연극통합수행평가는 학생의 인지, 감정, 의지 등 다양한 측면을 최대한 관찰해서 타당하게 평가해보겠다는 시도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대본 창작, 소품 제작, 음악 구성, 수많은 회의에서 적용한다.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소통, 배려, 인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교사들은 5일간 학생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평가한다.

Q 연극통합수행평가를 하니 어때요? 모든 과목을 평가하니 힘들지 않아요?

A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괜찮아요. 전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고, 목공을 좋아해요. 즉 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종이 시험으로만 저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극통합수행평가는 달라요. 물론 시나리오 쓰는 과정은 힘들었어요. 저는 말을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소품을 만들 땐 제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건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김해금곡고등학교 김용만 선생님의 블로그 중에서
(<https://yongman21.tistory.com>)

☞ **신영린 2학년** “연극통합수행평가 주제가 2022년은 ‘공존’, 2023년은 ‘시간과 기억’이었어요. 테마 안에서 연극을 만드는 데요. 아이디어나 소스는 누구 한 명에게서 나

올 수 있으나 모든 대사, 무대, 장면을 만드는 건 다 같이 해요. 주제가 ‘시간과 기억’인 만큼, 역사를 소재로 한 연극이 많았어요. 우리 팀은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했어요. 연극을 만들면서 갈등도 생기고, 스스로 한계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인지, 온건한 사람인지 깨닫기도 했어요.”

더 좋은 교육을 위한 끝없는 노력

전교생 30명, 교사 10명인 작은 학교, 김해금곡고등학교는 입소문을 타고 입학 경쟁률이 2.5 대 1로 치솟았다. 교직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에 대한 결과처럼 느껴지는 희소식이다.

☞ **이승주 부장 선생님** “기존의 선생님들이 많은 교과를 잘 소화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있어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안학교 공동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만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경남 13곳 대안학교가 있고, 제각기 특징이 다릅니다. 공동 교육과정을 만든다면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김해금곡고등학교 교무실에는 칸막이가 없다. 교장실도 없다. 교직원의 눈높이를 맞추고, 의견을 나눌 때 빠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다. 학교를 이루는 구성원 역시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해 소외 없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철학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서사가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고자 이토록 애쓰는 교직원들의 마음은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 **김용만 선생님** “우리 학교에 다닌 시간이 학생들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해요. 졸업한 1기 학생들이 꾸준히 교류하는 모습을 SNS에서 목격하거든요. 졸업해서도 학교 행사에 자주 놀러 와요. 올해 졸업식 때도 군대에 간 학생을 제외하고 1기 졸업생들이 모두 온다고 했어요. 감동이죠. 그만큼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의미 있고 즐거웠다는 이야기니까요.”

경상남도의 대안학교를 소개합니다

학교명	지역	구분	규모(정원)	운영
경남꿈키움중학교	진주	공립	9학급(135명)	기숙사
상주중학교	남해	사립	6학급(90명)	기숙형
대병중학교	합천	사립	6학급(90명)	기숙형
밀양영화고등학교	밀양	공립	6학급(90명)	기숙형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고성	공립	6학급(90명)	기숙형
거창연극고등학교	거창	공립	6학급(90명)	기숙형
김해금곡고등학교	김해	공립	3학급(45명)	기숙형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남해	공립	3학급(45명)	기숙형
합천평화고등학교	합천	사립	6학급(90명)	기숙형
간디고등학교	산청	사립	6학급(90명)	기숙형
지리산고등학교	산청	사립	3학급(45명)	기숙형
태봉고등학교	창원	공립	9학급(135명)	기숙형
창원자유학교	창원	공립	1학급(20명)	통학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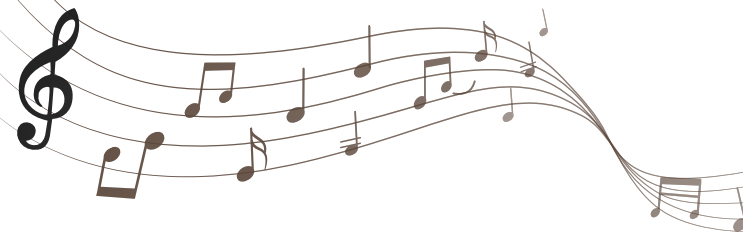
- 01 통합수행평가후 찍은 단체 사진
02 여행학교 영화제작 프로젝트의 영화편집 작업
03 해양산악훈련 중 광안대교 횡단 패들보드라이딩
04 1학년 학생들의 <로드스쿨> 제주도 100km 도보



희망을 이루는

“저는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는 조상래입니다. 이번 무대는 꿈과 희망을 노래한 가수 인순이 씨의 곡, ‘거위의 꿈’을 바이올린 이승우 단원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상래 단원의 곡 소개가 끝나자 익숙하면서도 따뜻한 선율이 창원한마음병원 로비를 가득 채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펼쳐지는 이 오케스트라 공연은 희망의 빛을 따라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온 이들이 완성한 장면이어서 더욱 눈부시다.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교향곡까지

벌써 3년째 매주 수요일 창원한마음병원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정기공연. 이날은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시작해 조용필 메들리로 막을 내렸다. 치료와 돌봄으로 지쳐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이던 발을 멈추고 잠시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1시가 되기도 전에 찾아와 공연 내내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치는 사람, 희망이름 정지선 대표다.

‘희망이름’은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재활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으로, 2012년 정지선 대표가 설립했다.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와 창원시 장애인오케스트라는 모두 ‘희망이름 오케스트라’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정지선 대표는 발달장애를 가진 4학년 아이의 피아노를 가르치며 특수교육과 음악치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오랜 공부 끝에 ‘한마음 오케스트라’를 꾸리게 된다. 멜로디언, 실로폰이 전부이던 합주팀은 플루트, 첼로, 바이올린 연주자가 채

‘희망이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정지선 대표

사람들





01 바이올린을 연주한 지 3년 만에 독주도 가능해진 이승우 단원
02 단원들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정지선 대표
03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공연이 열리는 창원한마음병원 로비

위지며 챔버오케스트라가 되었고, 어느새 수십 명의 단원과 예비 단원을 가진 관현악 오케스트라로 성장했다. 특히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는 전국 최초 기업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2021년 6월 창단 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정지선 대표가 '장애인도 예술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많은 기업의 문을 두드린 결과 이뤄낸 성과였다. 단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악기 연습을 하고, 주 1회 정기공연을 펼치는 '진짜 직장인'이 되었다. 월급과 4대 보험은 물론 병원 할인 등 복지 혜택도 받는다.

☞ 정지선 대표 “기존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 생산직이 주로 많았거든요. 문화예술형 일자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까 걱정도 많았지만 병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더 많은 곳에서 장애인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희망이룸’ 오케스트라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연주자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하나의 화음을 낸다. 돈을 벌기 위해 공장으로 출근하면서도 “곧 돌아올 테니 내 악기 버리지 마”라고 말했던 김진환 단원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마음껏 클라리넷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 정지선 대표와 인연을 맺었던 김태윤 단원은 어느새 반장 역할을 맡을 만큼 훌쩍 성장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승우 단원은 성인이 되어서야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고, 처음에는 ‘하고 싶은 악기가 없다’며 핸드벨 연주도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독주도 가능할 정도의 실력이 됐다.

또 눈에 띄는 장면 하나. ‘희망이룸’ 오케스트라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임을 전면에 내걸지 않는다. 발달·뇌병변 장애 여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연주 실력이 성장했다는 자신감의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주 실력은 물론, 서로 간의 소리,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가는 일도 익숙해지며 단원들은 음악적 한계도 넘어섰다. 이제는 관객 반응을 복기할 만큼 여유도 생겼다. 박수 소리가 평소보다 작거나 앵콜 요청이 없는 날에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유가 뭘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이들의 무한한 성장을 상상하게 한다.



‘월급 받는 예술인’이 되며 단원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다. 월급날이면 서로 ‘네가 짜라’ 장난을 치기도 하고, 공연 날 입을 옷을 사러 함께 가기도 한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일상을 꾸려가는 평범한 삶을 누리며, 이들은 ‘장애인’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중이다.

☞ 정지선 대표 “처음 희망이룸을 시작했을 때 우리 사회는 영화 ‘말아톤’이었거든요.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울부짖는 엄마의 모습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인식을 대변했다면, 최근 2년 사이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사실 장애인이라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이들을 보는 시선이 바뀐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희망하는 것들

희망이룸 가족들은 학교, 기업, 단체 등의 초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주 실력과 함께 장애인 예술인 고용 모범사례로 꼽히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덕이다. 이들의 공연을 보며 ‘나도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다’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문의는 물론, 기업이 먼저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며 도움말을 구하는 일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교육청으로, 단원 10명으로 시작하는 직영 장애인오케스트라를 꾸리고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울고 웃은 지 벌써 13년. 정지선 대표는 어느새 다음 발걸음을 고민하고 있다. 연주자들의 나이가 50대가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평생직장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장애인예술인을 꾸준히 발굴, 육성하는 한편, 기존 단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 정지선 대표 “지금의 단원들과 함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식 교육 일환으로 학교에 방문한 적 있었는데, 장애 학생들을 보는 단원들의 시선이 비장애인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복도에서 뛰는 아이를 보고 ‘나도 옛날에는 저랬다’ 공감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놀라는 아이를 보고 ‘자동차가 갑자기 지나가서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비장애인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해의 폭이 넓은 친구들이고, 그런 점에서 장애 전담 어린이집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전히 정지선 대표와 단원들은 새로운 꿈을 꾸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장애인들이 설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기를. 언젠가 학교에서 장애인 단원이 직접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는 일도 가능해질까.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은 물론, 그 모습을 보는 또다른 장애인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그 꿈이 이뤄지는 날을 ‘희망이룸’ 가족들은 꿈꾸고 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책 많이 읽어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여러가지 마음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된 겨울방학.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다섯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교육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살롱 드 경성

글 김인혜 출판사 해냄 출간 2023 쪽수 396쪽

한국 근대사를 수놓은 천재 예술가들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인 저자는 1930~40년대 경성을 무대로 펼쳐진 미술과 문학의 상호관계를 보여준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를 기획해 주목받았다. 이를 토대로 충실한 아카이브에 기반해 근대문학과 예술인의 열정과 고뇌, 따뜻한 우정의 비화를 책으로 엮어냈다. 혼돈의 시대 끼니를 걱정하는 삶 속에서도 예술에 사활을 걸었던 이들의 서사는 처절하지만, 시련을 딛고 마침내 빛을 발한 작품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준다.

책 속 한 구절 예술가가 될 운명이란 타고나는 것 같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주변의 반대가 극심해도, 예술가가 되겠다는 고집을 스스로도 꺾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것인지 모른다. (280쪽)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철학이 내 손을 잡을 때

글 김수영 출판사 우리학교 출간 2023 쪽수 191쪽

나의 오늘에 주문하는 “지금 이 순간, 철학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순간 헤매고 사색한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답하기 위해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만들었다. 누구나 들어봤을 문장이지만 과연 여기에 담긴 뜻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앞선 이들이 고민한 흔적은 나침반이 되어준다. 철학의 손을 잡고 춤출 수 있도록 책을 따라 사상이 태동했던 역사의 지층으로 떠나보자.

책 속 한 구절 자신을 돌보는 일은 철학의 궁극적 목적,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우리가 철학 하는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78~79쪽)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먹방 말고 인증샷 말고 식사

글 정정희 출판사 천개의바람 출간 2023 쪽수 195쪽

갈수록 어려워지는 선택, 오늘 뭘 먹지?

‘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배불리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 저자는 먹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한다. 나아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음식들이 나 자신과 사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책 속 한 구절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188쪽)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왕과 사자

글 김주현 그림 이로우 출판사 만만한책방 출간 2023 쪽수 124쪽

그대가 동물의 왕인가? 그대가 조선의 왕인가?

일제강점기 일본은 창경궁을 헐어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창경원으로 낮춰 불렀다. 조선의 궁궐을 무너뜨려 백성들 마음속 조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본의 간악함으로 생긴 동물원. 작가는 동물원에서 주위를 관찰하고만 있는 지친 사자의 눈을 빌려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전한다. 철창에 갇힌 동물들과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책 속 한 구절 김 씨가 외쳤던 그 만세가, 지금 이 땅에 왔잖아. 그러니 지금 내가 외치는 만세도 언젠가 올 거 아니야, 그렇지? (116쪽)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물동이 도서관

글 이가을 그림 국지승 출판사 한울림어린이 출간 2023 쪽수 38쪽

책과 사람, 그리고 도서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자, 마을 사람들은 도서관으로 모여든다.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 혼자 살고 있는 물이 할머니에게도, 일하느라 늘 바쁜 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운 동이에게도 갈 곳이 생겼다. 아직 글을 모르는 동이를 위해 옛이야기 그림책을 읽어 주는 물이 할머니 덕에 동이는 글자를 익히며 이야기에 흠뻑 빠진다. 두 사람은 책을 함께 읽으며 도서관에서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을 쌓아 나간다.

책 속 한 구절 “물이 할머니, 도서관에 가세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동이가 도서관에서 크는구나.” 도서관에 가는 동이를 모두 대견스러워합니다. (36쪽)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1
하오름달
2024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일	월	화
	1 신정	2 ● 10:00~17:00 / 디지털자료실(3층) / 김씨네 영화감상실(~1.31.까지)
7 ● 15:00~17:00 / 시청각실(3층) / 영화가 있는 일요 극장 <브로커>	8 ●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1.31.까지)	9 ● 09:20~12:00 / 1층 가락국실 / 겨울 독서교실 (제108회)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벽걸이 터널북 만들기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생각하는 글쓰기
14	15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벽걸이 터널북 만들기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생각하는 글쓰기	16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벽걸이 터널북 만들기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생각하는 글쓰기
21 ● 15:00~17:00 / 시청각실(3층) / 영화가 있는 일요 극장 <말할 수 없는 비밀>	22	23 ● 10:00~15:50 / 1층 더채움방 / 벽걸이 터널북 만들기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생각하는 글쓰기
28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한동일 교수 강연	29	30 ● 10:00~15:50 / 1층 더채움방 / 벽걸이 터널북 만들기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생각하는 글쓰기

수	목	금	토
3	4 ● 10:00~15:40 / 1층 놀이꽃밭 / 인형극 <팍죽할머니와 호랑이> ● 11:00,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5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도서관으로 찾아온 마술사 ● 15:00~15:40 / 1층 놀이꽃밭 / 인형극 <팍죽할머니와 호랑이> ● 11:00,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6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뮤지컬 <신데렐라> ● 14:00 / 지혜마루 / 뮤지컬 김지바 스쿨 <홍쇼콰이어> ● 15:00~15:40 / 1층 세상을 볼 / 새해맞이 국악공연 ● 11:00,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10 ● 09:20~12:00 / 1층 가락국실 / 겨울 독서교실(제108회) ● 15:00~17:00 / 시청각실(3층) / 5060 수요 영화 극장 <블랙>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신비한 과학교실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마음이 커지는 책놀이	11 ● 09:20~12:00 / 1층 가락국실 / 겨울 독서교실(제108회)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벽걸이 터널북 만들기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생각하는 글쓰기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마음이 커지는 책놀이	12 ● 09:20~12:00 / 1층 가락국실 / 겨울 독서교실(제108회)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신비한 과학교실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마음이 커지는 책놀이	13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뮤지컬 <신데렐라> ● 14:00 / 지혜마루 / 뮤지컬 김지바 스쿨 <홍쇼콰이어> ● 15:00~15:40 / 1층 세상을 볼 / 새해맞이 국악공연 ● 11:00,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17 ● 09:30~12:00 / 3층 더배움 3 / 친구로 만나는 로봇과의 모험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신비한 과학교실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마음이 커지는 책놀이 ● 09:00~11:50 / 책담 2층 책벗 / 제108회 겨울 독서교실	18 ● 09:30~12:00 / 3층 더배움 3 / 친구로 만나는 로봇과의 모험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벽걸이 터널북 만들기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생각하는 글쓰기 ● 09:00~11:50 / 책담 2층 책벗 / 제108회 겨울 독서교실	19 ● 09:30~12:00 / 3층 더배움 3 / 친구로 만나는 로봇과의 모험 ● 10:00~11:50 / 1층 더채움방 / 신비한 과학교실 ● 14:00~15:50 / 1층 더채움방 / 마음이 커지는 책놀이 ● 09:00~11:50 / 책담 2층 책벗 / 제108회 겨울 독서교실	20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혼성 3인조의 팼페라 ● 15:00~15:40 / 3층 무학전당 / 신나는 과학 퍼포먼스 <과학 마술사> ● 11: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24 ● 15:00~17:00 / 시청각실(3층) / 5060 수요 영화 극장 <히말라야>	25 ● 10:00~11:30 / 1층 힐링방 / 원데이클래스 <새해맞이 우리 민화 그리기>	26 ● 10:00~11:30 / 1층 힐링방 / 원데이클래스 <새해맞이 우리 민화 그리기>	27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탭댄스 <Shell We TapDance> ● 11:00,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31 ● 11:00 / 지혜마루 / 수요음악회 보컬리스트	31 ● 11:00 / 지혜마루 / 수요음악회 보컬리스트		

체험프로그램 안내

창원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안내

VR프로그램 3, 4, 6, 10, 11, 17, 18, 20, 24, 25, 31일
책담 2층 책고리
평일 10:00 / 주말 14:00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밀양에서 보내는 겨울방학은 추위도 심심함도 없지

방학이 되면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의 마음은 급해진다.
바쁜 일상에 쫓겨 하지 못했던 추억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깥은 찬바람이 뽀뽀 부는 겨울.
이럴 땐 추위도 심심함도 피할 수 있는 실내 여행이 제격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밀양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신비로운 우주여행과 알쏭달쏭한 기상과학을 알아보는 체험관,
수학과 놀이를 함께하는 수학체험센터도 기다리고 있다.
출고 긴 겨울 방학, 아이들과 알찬 추억을 남기고 싶은
어른들에게 이 여행을 권한다.

글 최규정 사진 백동민



- 01 하늘에서 바라본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 02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보조관측실. 총 5대의 망원경과 쌍안경이 있다.
- 0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기상현상관의 지진과 화산 체험 코너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국내 유일의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에 특화된 천문대이다.

세계 최초 음성인식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70cm 반사망원경 등 국내 최고의 관측 장비와, 국내 최초로 해설자와 관객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천체투영관, 흥미로운 전시체험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입장권은 매점에서 키오스크로 발권하면 된다. 기상과학관이 운영 중일 때는 묶어서 발권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계인의 흔적을 구경하는 것으로 우주여행은 시작된다. 밀양의 한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그 벽화의 지워진 부분을 복원했더니 타이탄(토성의 위성)에서 남긴 흔적이 있다는데 이때부터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리고 만나는 케플러62 공전 모형. 거문고자리에 있는 케플러62 항성계에서는 현재 5개의 행성이 발견됐다. 그중 둘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추측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일까?

25.4m 차세대 초거대 망원경인 GMT를 8분의 1 크기로 줄인 모형. 우리나라도 10%의 지분으로 참여한 이 망원경은 칠레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 2025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망원경이 완성되면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니 미래를 향한 상상은 더욱 무궁무진해진다. 스페이스 시어터에서는 5m 크기의 원형 바닥형 시어터를 통해 우주탐사선 미리별호를 타고



원홀을 지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떠나는 체험을 하고, 천체투영관 상상에서는 직경 14m 스크린을 통해 약 1,000만 개의 별을 투영해 실제와 같은 밤하늘을 체험할 수 있다. 천체관측실 중 보조관측실에는 총 5대의 망원경 및 쌍안경이 있는데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행성을 포함한 천체 대상들을 보여준다. 주관측실로 가면 고성능 망원경 '별이'의 음성인식 제어 시스템으로 망원경을 가동할 수 있다.

이웃에 자리한 국립밀양기상과학관에서는 날씨 속 기상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VR 지진체험, 국가기상센터 체험, 전시해설, 코리올리 포스 체험, 기상예보관 및 기상캐스터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그간 궁금했던 기상·기후의 해답을 생동감 넘치는 체험으로 알아볼 수 있다. 코리올리 포스는 바람의 생성 원리와 바람의 종류, 대기의 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밀양의 명소인 얼음골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얼음골에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이유와 원리도 알 수 있다. 시간표 확인은 필수이며 예약을 하면 더 좋다.



- 04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관측실의 고성능 망원경 '별이'
- 05 국립밀양기상과학관의 일기예보 제작과정을 탐구하는 기상예보관
- 06 밀양수학체험센터의 실습실
- 07 밀양수학체험센터의 방학체험수학캠프 모습
- 08 밀양수학체험센터 외관



여기에 놓치기 아까운 밀양수학체험센터로 일정을 마무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경남수학문화관은 수학교육 대중화를 위한 국내 최초의 체험 탐구 중심 수학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경남도 내 총 6개 지역에 수학체험센터 분원(거제, 양산, 진주, 밀양, 김해, 거창)을 갖추고 있다. 그중 밀양수학체험센터는 외관부터 독특하다.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도색했는데, 가로와 세로의 비가 황금비(1:1.618)를 이루는 황금 사각형의 수학적 의미를 담아 일단 시선을 끈다.

체험탐구활동 수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학교와 보호자,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놓았다. 특히 주말 프로그램은 매달 주제가 달라지지만 수학 공식을 가족이 함께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우리나라 수학자 이름을 딴 홍대용 마당, 홍정하 마당, 최석정 마당. 교실 입구에서 수학자의 업적을 차분히 읽어보면 존경심과 동시에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이와 짝꿍이 되어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면 부모는 잠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문제에 열중하게 된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은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선물할 수 있을듯하다. 2층 놀이마당에 마련된 뫼비우스, 거울반사퍼즐, 사이클로이드 작도기, 아르키메데스 나선, 피타고라스정리 다각형 퍼즐 등 체험교구는 막연히 공식과 생각으로 접했던 수학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예약자 중 취소가 생기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겨울방학을 맞아 밀양수학체험센터는 함안·창녕·밀양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방학체험수학캠프를 마련한다. 접수는 오는 1월 9일까지이며, 운영은 올해 1월 17일부터다. 신청은 경남도교육청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우주와 기상에 대한 탐구는 물론 수학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밀양. 추억은 덤이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 주소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86
- 문의 055-359-4734
- 주관 개관 연중 운영.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매표소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
- 아간 개관 하절기(4~8월) 오후 8시부터
동절기(9~3월) 오후 7시부터
* 아간 개관은 예약하신 분들만 관람 가능합니다.
- 누리집 <https://www.miryang.go.kr/astro>

국립밀양기상과학관

- 주소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84
- 문의 055-981-7370
- 운영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오후 4시 30분 매표 마감
- 누리집 <https://science.kma.go.kr/science>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밀양수학체험센터

- 주소 밀양시 가곡13길 24(밀주초등학교 별관)
- 문의 055-356-3014
- 운영 월~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학교 체험 프로그램은 월~금요일, 가족·친구 체험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진행된다.
- 누리집 <https://gnmc.gne.go.kr/myfm/main.do>
* 방학체험수학캠프 신청 : <https://service.gne.go.kr/yeyak/main.do>

우리 가족이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비결은?

‘조금만 보다가 자야지...’ 각오도 잠시.
SNS와 짧은 영상 몇 개만 보려고 스마트폰 화면을 열었다가
눈이 빨개진 뒤에야 겨우 화면을 닫은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나라도 놓치면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쉽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시대,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지도 모른다.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독파하며 스마트폰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가족. ‘2023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동주네 가족을 마산합포도서관에서 만났다.



‘책 읽는 가족’

2관왕

동주네는 11월에 있었던 창원북페스타에서 마산합포도서관 추천으로 ‘2023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 ‘책 읽는 가족’은 한국도서관협회와 지역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가족 독서 캠페인 일환으로, 1년 치 도서 대출량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참여도, 연체 이력 등 이용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사실 동주네는 이미 ‘책 읽는 가족’ 현판이 하나 있었다. 창원으로 이사 오기 전 통영에 살 때도 한 차례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며 독서문화를 이끄는 가족으로 인정받았다.

☎ **아빠 김기남** “통영에 살 때는 통영도서관에 정말 자주 갔었거든요. 마산합포도서관에 다닌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마산합포도서관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표창인 데다 우리 가족의 책 읽는 습관을 많은 분이 인정해 준 것 같아 뿌듯함과 성취감이 더 큼니다.”

가족의 독서 습관을 지켜주는 곳은 다름 아닌 도서관이다. 통영에서는 가족이 다 함께 일주일에 두 번, 꼬박꼬박 도서관을 찾았고 창원에 사는 지금은 평일에는 엄마 유미 씨가 도서 대출과 반납 당번으로, 주말에는 가족이 다 함께 도서관을 찾고 있다. ‘책 읽는 가족’답게 온 가족이 책을 사랑하지만, 그중에서도 엄마 유미 씨와 둘째 동주가 가장 많은 독서량을 자랑한다. 평균적으로 유미 씨는 일주일에 두 권 정도를 읽고, 동주는 11월 말 기준으로 1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100권이 라는 숫자 역시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만화 중심의 독서에서 글 위주의 독서로 넘어가며 권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 **둘째 김동주** “주변에 책보다 게임이 재밌다는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도 책을 읽고 싶다면 학습만화로 시작해 보는 걸 추천해요. 그림이 많으면 재밌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요즘 보는 책은 그림보다는 글자가 훨씬 많은데, 글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점점 상상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책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하니까요.”

스마트폰 보다 재밌는 책

우리 가족의 독서 비결은?

가족의 독서 습관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원래도 책을 좋아했던 부부였지만 가족의 독서가 더욱 깊어진 것은 동주가 4살 때까지 토레에 비해 발달이 늦은 것이 시작이었다. 스마트폰이 없는 집이 드물어지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

하던 시기였다. 아이에게 영상을 자꾸만 보여주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마음이 책으로 옮겨갔다. 책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다행히 형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다. 동주는 ‘기억 나옴’으로 시작하는 한글 공부 대신, 그림책을 보며 통 글자로 한글을 익혀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금도 동주네에는 규칙이 있다. 휴대전화는 거실에서만 사용할 것. 엄마 아빠도 자녀 앞에서는 가능한 한 스마트폰을 열지 않는다. 친구들과처럼 게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끔 내비치지만, 아직은 ‘게임은 주말에만’이라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형제의 스마트폰에는 그 흔한 게임 앱 하나 깔려있지 않을 정도다. 동주네 거실에는 큰 테이블이 있는데, 식탁으로도 사용되고, 책 읽고 공부할 때도 사용되는,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학원이냐’ 할 정도로 식탁에는 늘 책이 펼쳐져 있다. 독서가 습관을 넘어 생활이 된 집인 셈이다.

● **엄마 박유미** “저는 독서에 목표를 두지 않아요. 그저 재밌어서, 취미로 읽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저 좋아하는 책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책을 읽어 좋은 점은 분명하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분명 도움이 되고, 가족 간 소통이 늘어난 것도 독서가 주는 장점이다.

● **엄마 박유미** “책을 읽지 않는 가족과 대화 주제가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보는 책을 저도 함께 보고, 형동연이가 보는 책을 동주도 보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 책 속 정보나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간 공감대가 생기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일도 늘었어요.”

● **아빠 김기남** “아이들에 비해 어른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고착되기 쉬운 상태잖아요. 더 이상 바꿀 것도, 새로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책 한 권만 뽑아서 읽어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책을 통해 스스로와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만큼,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책을 많이 읽어야 세상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 2023창원북페스타에서 '책읽는가족'으로 선정되었다.

책 읽는 가족이 추천하는 책책책



아빠 김기남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앤디 앤드루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이나 취직 문턱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지표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 책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힘차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큰 힘이 됐어요.”



첫째 김동연
〈이상한 수학책〉
벤 올린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추천해 준 책인데요,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 생활에 수학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보여주는데,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어요.”



엄마 박유미
〈궁극의 아이〉
장용민



“일단 책을 재밌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남녀노소 누가 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작가의 지식과 상상력에 감탄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책을 펼치는 순간 끝까지 읽게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둘째 김동주
〈몬스터 차일드〉
이재문·김지인



“주인공 하늬는 ‘몬스터 차일드 증후군’으로 특정 순간 발작과 신체 변이를 겪어요. 그런 자신을 싫어하며 살다가 같은 증후군을 겪는 연우를 만나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야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

토박이말바라기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나들이

배움책(교과서)에서 캐낸 토박이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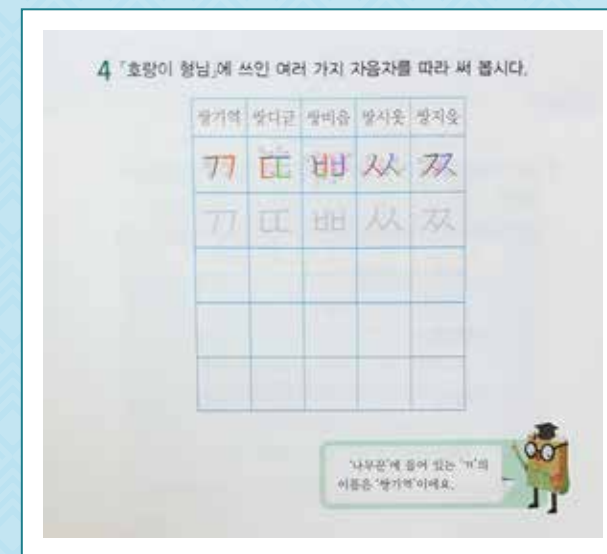
된기역, 복슬이

<토박이말>이란?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써 오는 말이나 그 말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말. 참우리말,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함.

1학년 국어 배움책(교과서) 여덟째 배움 마당은 ‘소리 내어 또박또박 읽어요’입니다. ‘문장 부호를 생각하며 글을 띄어 읽기’가 버름소(주제)이고 219쪽에 ‘여러 가지 자음자’를 따라 써 보는 알맹이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자음자’와 아랑곳한 이야기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자음자’라는 말을 보시고 무엇을 떠올리셨는지요? 아마 틀림없이 이것을 나타내는 말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래에 있는 배움책 찍그림(사진) 보시고 나면 바로 아실 테고요.



보시다시피 ‘ㄱ’, ‘ㄲ’, ‘ㄴ’과 같이 같은 닿소리가 나란히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자음’을 ‘닿소리’라고 하면 1학년 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다만 ‘여러 가지’라는 말 보다 더 쉬운 표현이 없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배움책을 보면 위에서는 ‘여러 가지 자음자’라고 하고 그 밑에는 ‘쌍기역’, ‘쌍디귤’,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으며 그 아래 도움말에 “나무꾼”에 들어 있는 ‘ㄱ’의 이름은 ‘쌍기역’이에요.”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쌍기역’을 찾으면 ‘쌍(雙)’이 한자말이라는 것도 알려 주고 비슷한 말로 ‘된기역’이 있다고 알려 줍니다. 그리고 ‘된기역’을 찾으면 ‘ㄱ’의 이름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지요. ‘쌍디귤’,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보다 ‘된디귤’, ‘된비읍’, ‘된시옷’, ‘된지읒’이 훨씬 쉬우면서 얼른 알아차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ㄱ’, ‘ㄲ’, ‘ㄴ’, ‘ㄷ’, ‘ㄸ’과 같은 소리를 ‘된소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된소리가 나는 닿소리’는 ‘된닿소리’라고 할 만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쌍기역(雙기역)

• 「명사」 한글 자모 ‘ㄱ’의 이름. ㄴ된기역

220쪽부터 221쪽에는 ‘문장 부호에 맞게 띄어 있는 방법 알기’라는 버름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220쪽 편지 속에 나오는 강아지 이름이 ‘복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복실이’라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나날살이에서 ‘복실이’라는 이름이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쓰는 말이지만 배움책인 만큼 이 말이 ‘대중말(표준어)’인지를 따져 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 가운데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지요. 노래에 나온 ‘복슬강아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털이 복슬복슬하고 탐스럽게 생긴 강아지’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복슬복슬’을 찾으면 ‘살이 찌고 털이 많아서 귀엽고 탐스러운 모양’이라고 해 놓았지요. 그리고 ‘복실복실하다’를 찾으면 “‘복슬복슬하다’의 비표준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복실이’를 찾아보면 “‘복슬강아지’의 방언(경남)”이라고 풀이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복슬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경남에 사는 아이가 쓴 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챙겨서 바로잡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슬강아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복실이’를 대중말(표준어)로 쳐 주지 않는다면 ‘복슬이’라는 말을 말집(사전)에 올려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배움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쉬운 말, 바른 말을 챙겨 쓸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마음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

프로야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이유를 말할 때, 첫 번째로 동계훈련 기간동안의 실력 향상을 많이 꼽습니다. 비시즌인 동계훈련 기간동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훈련에 매진하며 이 시기를 잘 보냈기 때문일텐데요. 이처럼 우리 학생들도 겨울방학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학습 능력을 보완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간이 될 테니까요. 2024년 1월 호에서는 겨울방학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규칙적인 방학생활 하기

학기 중과 비슷하게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학이라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은 생체리듬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다시 개학을 했을 때 적응하기 힘들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학습내용 중 부족한 점 파악하기

자기 자신만큼 자신의 학습에서 부족한 점과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던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부족한 학습 내용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방학 동안 어떤 과목을 어떻게 향상할지 기록을 통해 정리해보고, 부족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보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학기에 배울 학습 내용을 미리 많이 배우는, 즉 지나친 선행학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건물을 짓는 것과 같으니까요.

셋째 진로에 대한 고민하기

방학기간 동안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장래희망, 직업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나의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지, 혹은 과학적인 흥미가 풍부한지, 예체능적인 재능이 있는지 등 어느 분야에 역량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공적합성을 찾기보다는 계열적합성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폭넓은 범위에서 자신의 성향을 찾는 것에 우선해야 하는데요. 중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전, 위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학습하는 선택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말부터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이공계 학과에서는 지원학과와 관련한 교과이수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을 활용해 문·이과 계열은 어느 정도 정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독서를 생활화하기

학교시험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책 속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독서관은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문해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문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이번 방학 동안 책 읽기를 시작해 학기 중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입에서도 교과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역량 발휘를 위해 독서를 활용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3학생은 미리 고등학교 문제유형 접하기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은 미리 고등학교 문제 유형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시험문제는 학교 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 중학교에서 경험한 문제보다 복잡하고, 풀이에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문제 유형을 익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년 3월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섯째 수시·정시모집 전형 특징 파악하기

2025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은 수시·정시 모집 전형의 특징을 파악하여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파악하고 방안을 찾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입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은 선택과 집중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학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고 3학년에 진학 후 집중적으로 대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진학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경남대입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방문·전화·온라인으로 맞춤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1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고1,2,3을 위한 맞춤 진학상담>기간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학과 대입의 모든 것, **경남대입정보센터**

🌐 <https://jinhak.gne.go.kr>

☎ 055-210-5122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남대입정보센터**

학생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며
실천합니다.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학교 예술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예술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 개의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학생오케스트라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개발 및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170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재학 중인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진학으로 인해 기존 활동이 단절된 학생 중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지역별 거점 오케스트라 23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 특성에 맞는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예술동아리(합창, 전통음악, 미술 동아리 등)를 2019년 250개교에서 2023년 350개교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인을 활용한 305명의 강사를 740개교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의 교육 요구,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 등을 반영해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기 초 협의를 통해 학교와 교사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학교예술강사는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통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인지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문화와 학생교육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전문성 확보로 학교 예술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악기도서관 운영



체험중심의 예술교육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악기도서관을 구축·운영(악기 130종 1,569대 보유)하여 악기 전시, 체험, 대여를 통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대상 상시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등 해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38석 공연장·대기실·운영실·조정실·사무실 등이 갖춰진 해봄아트홀을 구축하여 예술체험 공연 및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교육 공동체가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실천하는 예술공감터 구축(8개교)·운영(35개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일상적 문화예술 전시, 체험, 공연 및 문화예술적 소양과 인문학적 감성을 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공감터 공간조성

구분	공간조성(안)	운영내용
예술 체험터	합주실, 댄스실, 밴드실, 목공실, 도예실, 연극실, 뮤지컬실 등	· 다양한 영역의 예술체험활동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댄스 등) · 교사 연수 운영 · 예술기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 지역주민 예술체험
공연터	소공연장	· 예술동아리 발표 · 예술활동 결과 발표 · 게릴라 콘서트 · 연극, 뮤지컬 등 공연 · 작은 음악회
전시터	갤러리	· 예술동아리 결과물 전시 · 사제동행 전시 · 예술동아리 작품전시 · 지역예술인 초대 전시 · 교원, 보호자 작품전시
복합예술터	복합예술공간	전시, 공연, 예술체험, 예술수업 등 복합 운영 공간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8번길 18

3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전문가 운영



- 원도심 및 농어촌, 도서·벽지 등 예술소외지역 학교 학생들의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접적인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전문가 사업을 180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단체 공모 선정을 통해 희망하는 학교와 매칭시켜 학교별 공연 및 전시 관람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문화 향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예술체험 확대 및 학교 맞춤형 예술체험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학교 제공
학 교	학교 실정 및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운영
예술단체	해당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 2023년 11월에는 대규모 연합 연주로 하나의 울림을 선사한 경남학교 예술교육 대축제 '하나의 울림'을 개최하여 연합 공연단 2,000여 명과 관객 3,000여 명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감성 회복의 장을 만들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교육청 공고문 바로 쓰기〉 500권 발간

2021~2022년 공고문 분석 상세한 해설을 담아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직원이 쉽고 올바른 공고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23년 12월 5일 〈경상남도교육청 공고문 바로 쓰기〉를 발간했다. 공고문은 사업 공고문, 채용 공고문, 행정 안내문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고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써야 하며 권위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

2022년 발간한 〈경상남도교육청 공공언어 바로 쓰기〉가 공공언어를 들여다본 일종의 개론서였다면 이번 책자는 공공언어의 종류인 공고문 쓰기를 구체적으로 다룬 실용서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가운데 공고문 작성법을 다룬 책을 펴낸 것은 처음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책은 크게 ‘공고문 작성 길잡이’, ‘유형별 공고문 바로 쓰기 실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별 공고문 바로 쓰기 실제에는 공고문 원문을 제시하고 제목, 구성, 어휘, 표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부문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왜 수정이 필요한지 상세한 해설을 달았다. 경남교육청은 제작한 책자를 분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배포하며 누구나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피디에프(PDF) 파일로 게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경남 도내 4개 학교 선정

거제 송덕초·통영 벽방초·거제 장목예술중·남해 창선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

교육부의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도내 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거제 송덕초는 작은 어촌 마을로 학생 수 감소와 소통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직원이 마음을 모으고 보호자의 지지를 받으며 새롭게 달라졌다고 평가를 받았다. 통영 벽방초는 산과 들, 바다가 인접한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에 있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로 인구 수 감소로 통폐합 대상 학교였으나 2022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꿈을 품고 행복을 담은 산울림 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거제 장목예술중은 출생률 저하, 지역 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입학생이 8명에 불과해 폐교의 위기를 겪었지만 구성원의 노력과 주민의 소통과 지지로 2022년 입학생 수 28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남해 창선고는 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꾸준히 높여 학령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학급 수 감축 위기를 벗어나 현재 전국이 주목하는 공교육 중심 모델 학교로 자리 잡았다.

경남교육 NEWS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박람회 개최

12월 6~7일 창원컨벤션센터서... 모델 공간, 미래 교실 재현

경상남도교육청은 2023년 12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1전시장에서 ‘2023년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박람회’를 열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 복합화, 안전을 핵심 요소로 5년간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시설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오늘을 담아, 내일로 잇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한마당’으로 크게 5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모음 마당에는 2021~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과 설계 자료를 전시했다. 담는 마당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향하는 공간과 미래교실을 재현했다. 특히 미래교실에서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첨단 교수·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마당이 펼쳐졌다. 아울러 기자재 전시관에는 미래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관련 기자재 등을 전시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교육 환경의 청사진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회 경남 자원봉사 명문가에 산촌유학교육원 박현성 교사 3대 가족 선정

전국 자원봉사 최우수 사례 2회 수상 등 3대가 함께 봉사활동의 새로운 모델 제시

2023년 12월 6일(금)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경남자원봉사자대회에서 박주영, 윤숙이, 박현성, 구은복, 박민기, 박지민 3대 가족이 제1회 ‘경남 자원봉사 명문가상’을 수상하였다.

자원봉사 명문가는 3대에 걸쳐 모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박주영 씨 가족은 총 5,200시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였다. 1대인 박주영 씨는 바르게살기운동 생초면협의회에서, 배우자 윤숙이 씨는 산청군 적십자에서 결연세대 구호품 전달, 청소, 상담, 무료급식 지원 등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2대인 아들 박현성·구은복 씨는 부부 교사로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봉사단’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3대인 박민기(관동초5)·박지민(관동초2) 남매는 가족의 봉사활동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상금을 받으면 ‘1+1 기부’로 받은 상금만큼을 더해 기부하고 있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나눔축제에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여 기부하는 등 지금까지 상금 3,000만 원에 6,000만 원 이상을 물적 기부하였다.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김해6)

아이종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회현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지역구 교육위원장 박병영(김해6)입니다.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어느 때보다 경남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실 텐데요. 평소 의원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의원님께서 바라는 경남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돼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주



체인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교원과 교육 행정까지 '소통'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교육의 주체들이 포용적 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는 것, 그것이 현재 경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 조성'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 학교폭력 문제, 악성 민원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인 김해시에 다문화 아동 청소년 공교육 진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남의 경우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중도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입국 초기에 조기 적응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의 현행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지원 범위를 제도권 밖, 공교육 진입 전 학생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지난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교육 진입 초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공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정착과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전인적 통합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 새로운 경남도의 회를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신다면?

☞ 교육위원장을 맡은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역의 교육 현안은 물론 경남 미래 교육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경상남도의회 운영 계획

회기운영계획

- 정례회(65일 이내) 2회, 54일(1차 15일, 2차 39일)
- 임시회(회별 15일 이내) 8회, 70일

월별 운영 계획

1월 (제410회)	회기 : 1.25.(목)~2.1.(목)
• 2024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교육감)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임위원)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3월 (제411회)	회기 : 3.5.(화)~ 3.14.(목)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도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4월 (제412회)	회기 : 4.16.(화)~4.25.(목)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5월 (제413회)	회기 : 5.14.(화)~5.24.(금)
• 추경예산안(도청, 교육청)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6월 (제414회)	회기 : 6.4.(화)~6.18.(화)
•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 도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6월·7월 (제415회)	회기 : 6.26.(수)~7.1.(월)
• 12대 후반기 원구성	
7월 (제416회)	회기 : 7.11.(목)~7.18.(목)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9월 (제417회)	회기 : 9.3.(화)~9.11.(수)
• 도정에 대한 질문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10월 (제418회)	회기 : 10.15.(화)~10.22.(화)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11월·12월 (제419회)	회기 : 11.5.(화)~12.13.(금)
• 행정사무감사 • 도정에 대한 질문 • 2024년도 정리추경예산안 • 2025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겨울철 으뜸 간식, 감 잡았어! 임금님도 반한 지리산 명품 곶감

매년 12월 중순 즈음이 되면 지리산 자락은 주홍빛 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햇살에 반짝이는 곶감이 무채색의 겨울 들녘에 밝고레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긴 기다림 끝에 새하얀 분을 내 뿜을 때쯤 우리는 겨울 한가운대를 지날 것이다. 찬 바람 부는 곶감의 계절, 본격 출하를 알린 지리산으로 가보는 건 어떤가?

고종황제 매료시킨 지리산 '고종시' 곶감

때아닌 봄 날씨가 이어지던 날,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자락의 '지우농원'을 찾았다. 50년 만의 겨울 더위라는 뉴스가 무색하리만큼 지리산 바람은 겨울을 재촉하듯 차갑다. 주홍빛 물결 일렁이는 덕장으로 발걸음이 자연스레 향한다. 주렁주렁 매달린 수만 개의 감이 마치 설치미술 작품처럼 근사한 장면을 연출해냈다. 그 사이 어디쯤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했더니, 잉꼬부부로 소문난 한영민·김미영 씨가 곶감을 주거나 받거나 작업이 한창이다. 지리산 곶감 원료인 '고종시'의 유래와 특징을 물었다. "지리산 곶감의 원료인 '고종시'의 명칭은 고종 황제가 맛을 보고 감탄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백두대간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자연에서 키워내, 예로부터 임금님께 올리는 최

상의 진상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곶감 빼먹듯 한다'라는 말처럼 부부가 번갈아 가며 곶감을 빼입으로 넣어준다. 여태 먹어본 곶감은 곶감이 아니었던가? 달콤함과 쫄깃함이 일품인 그 맛에 임금님도 반할만했겠다.

'기다림의 미학'으로 탄생, 산청 곶감 가치 인정

"올해 이상기후로 여느 해보다 고종시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지리산 곶감은 순조롭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햇빛, 물, 바람, 온도 모든 것이 곶감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한 대표의 말마따나 지리산 권역의 곶

감 농가는 자연건조로도 충분히 명품 곶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곶감 만들기는 전정하고 거름을 내고 과실을 따서 깎아 덕장에 걸리는 이맘때까지 고된 노동의 연속이다. 덕장에 걸리는 순간부터 대략 40~60일간은 하늘에 그 운명을 맡긴다. 이 시점이 바로 지리산의 마법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다. 농사꾼과 함께 사계절을 겪어낸 후에야 비로소 다디단 과육으로 완성, 곶감이 걸어진 길은 '기다림의 미학'을 새삼 깨우쳐준다. 산청 곶감과 원료 감인 고종시는 2016년부터 8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와 대표 과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종황제 진상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선물, 청와대 선물 등 맛과 멋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리산이 빛은 상상 그 이상의 맛! 함양 곶감

'지우농원'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의 함양군 함양읍 대실골길로의 '지리산곰실 곶감농원' 덕장과 마당에도 곶감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24년 차 농부 박효기 대표가 곶감 축제 준비로 분주했다. 이날도 축제 관련 회의가 있어 잠시 시간을 내주셨다. 그는 곰실곶감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자 함양고종시곶감축제위원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함양 곶감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지리산 고종시 감은 99% 씨가 없어서 곶감 만들기도 좋고 먹기에도 편합니다. 좋은 원료가 지리산의 품 안에서 열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쫄깃한 맛을 만들어 냅니다." 함양에서도 하늘이 내린 지리산의 환경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덕장 내부는 촘촘하게 걸린 곶감 외에는 어떤 기계설비도 보이지 않는다. 지리산 햇살 한 줍, 바람 한 점을 머금고 맛있게 익어가는 곶감만 있을 뿐이다. 꽃내 나던 뚝은 시절을 지나 초매식을 끝내고 출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함양만의 특색 '타래 곶감'으로 챙기는 건강

박 대표가 함양 곶감만의 특색있는 타래 곶감을 소개한다. 50개에서 100개가량 감을 촘촘하고 길쭉하게 사방으로 엮은 모습이다. 곶감을 즐기는 분이라면 겨우내 먹을 간식으로 안성맞춤이다. 그 맛 또한 뚝은 과육이 이렇게 달아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리만큼 단맛과 쫄깃한 식감을 선사한다. 곶감의 효능은 맛있는 맛 그 이상이다. <본초강목>, <본초정화> 등 옛 문헌에도 건강에 이로운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운을 북돋우고 위장을 편하게 하며, 폐·기관지와 목 건강에 좋다. 또한 각종 출혈을 멎게 하고 설사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얼굴의 기미와 주근깨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피부미용에 관심 있다면 꾸준히 곶감을 먹어보길 추천한다. 지리산 곶감의 계절은 지금부터이다. 맛과 건강까지 챙긴 곶감으로 겨울 간식을 준비해보자.

지우농원	주소	산청군 삼장면 서당길 187번길
	문의	010-5062-8292
	산엔청물	www.sanenchong.com
지리산곰실 곶감농원	주소	함양군 함양읍 대실골길로 422
	문의	010-9308-2994
	곰실곶감	smartstore.naver.com/gomsil

★ 아이좋아 12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

2024년 새해를 맞아 꼭 시작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이승우 님 • 작년 10월 초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재취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4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 이부금 님 • 내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제가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계획이라 고민이 많지만 도전해 보고요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내년에 40대에 접어드는 김에 과감하게 선택했어요.

☞ 정찬식 님 • 좌절하지 않는 마음다짐입니다. 뭔가를 목표로 하면 그것만 쫓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하나의 목표보다는 좌절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2024년의 어떤 일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 이승주 님 • 외국어 공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떤 것에 열정을 쏟고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고 무엇이랄도 새롭게 해보고 열정을 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신송이 님 • 새해에는 새 생명을 가지고 싶습니다. 친구들 중 아직 아기를 가진 사람은 한 명뿐이지만, 30대이기도 하고 부부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반갑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에 저의 소원입니다. 꼭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해 보려고요. 아자 아자 파이팅!

☞ 최준영 님 • 2024년에는 책을 읽은 뒤 하루에 한 번 독서일기를 작성해서 연말이 오면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책을 원래 거의 읽지 않다가 최근에 책을 조금씩 시간 내어 읽기 시작하였는데 책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는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빠짐없이 읽다 보면 독서를 떠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끈기 있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영상들을 보면 생각 없이 훌쩍 지나갈 때가 많은데 독서는 하다 보면 이 장면에서 왜 이래야 했지?라는 의문이 생기며 제 나름대로 해석도 해가며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생겼습니다. 2024년에는 독서로 시작하여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 박판도 님 • 2024년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올해는 직장 생활과 결혼 준비로 바쁜 나머지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많이 나빠졌고, 몸이 자주 아프기도 했지요. 2024년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림 그리기와 음악 감상을 좋아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를 즐길 시간이 부족했어요. 2024년에는 그림을 배우거나 음악을 배우는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네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싶습니다.

☞ 박철우 님 • 체중 감량입니다.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데요. 꾸준히 하진 못해도 결국엔 해내고 싶어요.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느껴져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네요.

☞ 최인지 님 • 헬스 트레이닝입니다. 그동안 건강관리에 너무나 소홀해서 아픈 날도 많았던지라 새해엔 좀 더 건강한 나로 만들기 위해 체력도 올리고 근력도 만들 겸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이벤트는 <아이좋아> 소식지 12월호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댓글 이벤트입니다. 매달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1월호 이벤트는 12월 말 경남교육청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에 공개되는 예고편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월호
예고편 영상 보기



2024년 1월 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1월 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 2024년 새해는 푸른 용을 뜻하는 00의 해입니다. 00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세요. (객관식)

① 흑룡 ② 청룡 ③ 청군 ④ 용띠

2. 김해모산중학교의 응급구조 동아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객관식)

① 119 ② 나이트게일 ③ 하트비트 ④ SOS

3.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만든 경남 1호 민간위탁 공립대한학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단답형)

4. 한국 고유의 운동으로, 두 사람이 살바나 바지 허리춤을 잡고 힘과 슬기를 겨루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를 말합니다. 마산중학교 00부 학생들은 지난 총 3번의 전국대회에서 모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12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1. ③ 국악 2. ② 스트로베리 3.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4. 늘봄
● 당첨자 함안 가야초 김유은, 밀양 부북초 조경성, 함양 위성초 김승민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4년 1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8

* 유의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정답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4년 1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8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가수사의 함께그리는 미래

배움중심의 새로운 수업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모든 학생의
교육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생태전환
교육**

깨끗하고 공정한 자원행정

**행복한 일터
조성**